

충성대신보

제 211호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너의
새출발을
응원해!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박성훈 / 편집인 김창언 / 주간 최재호 / 부주간 권지민
편집담당 강수정 / 편집국장생도 이예찬 / 충성대신문사(054)330-3605 www.kaay.mil.kr
211호 사진제공 및 편집: 윤대진 사진작가, 주무관이성주, 일병 이수우

육군3사관학교 제60기 졸업 및 임관



제60기 사관생도 368명(여생도 48명),
졸업과 동시에 정예 육군 장교로 임관

대통령상 이상훈 소위, 국무총리상 고병찬 소위,
국장부장관상 전호민 소위 수상 영예

3대 병역이행 명문가,
아버지와 동문이 된 소위 등 다양한 사연 눈길

지난 25일,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제60기 졸업
및 임관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외부인사를 포함해 가족, 친지, 총동문회, 학교 관
계자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은
KFN TV 생중계와 SNS 라이브방송을 시청하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우등상 수여 ▶졸업증서 및 임관 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축전 낭독 ▶분열 순으로 진행되었다. 졸업과 동시
에 소위로 임관한 제60기 368명(여생도 41명)은 2023년 입학해 2년 동안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학위교육을 병행하였으며, 군사학과 일반학과 학위를 동시에
취득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이상훈(남, 26세, 항공) 소위가 수상했다. 이 소위는 “육군 정
예장교로서 첫발을 내디딘 지금, 군과 국민 여러분께 든든하고 믿음을 주는 군인
이 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무총리상은 고병찬(남, 24세, 항공) 소위가, 국방부장관상은 전호민(남, 23세,
보병) 소위가 수상하였다. 합참의장상은 한가은(여, 23세, 정보) 소위, 연합사령관
상은 전우원(남, 23세, 보병) 소위가 주인공이 되었다. 홍영빈(남, 22세, 군사경찰),
이현석(남, 25세, 보병), 최승혁(남, 23세, 보병) 소위는 각각 육·해·공군참모총
장상을, 전희준(남, 23세, 보병) 소위는 육군3사관학교장상을 수상했다. 한편, 수상
자 외에도 신입장교들의 다양한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병역이행 명문가, 3대에 걸쳐 육군 간부의 길 선택

병역이행 명문가로서 3대가 육군 간부로 복무하게 된 인원들이 있다. 백승(남,
22세, 의정), 이준호(남, 22세, 보병), 김관중(남, 23세, 병기), 고병찬(남, 24세, 항공),
김현빈(남, 22세, 보병) 소위는 3대에 걸쳐 군인의 길을 걷게 됐다. 이중 백승 소위
는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장교로 임관했다.

백 소위는 “3사 1기이신 외할아버지의 후배이자 동문으로 임관해 자랑스럽다”
라며,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매 순간 위국헌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
고 포부를 밝혔다.

아버지와 함께 3사 동문 등 화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3사 동문이 된 신입장교는 김민석(남, 24세, 정보), 이현준
(남, 24세, 보병), 최유찬(남, 24세, 보병), 정문기(남, 25세, 공병), 류동균(남, 24세,
항공), 김관중(남, 24세, 병기), 박성현(남, 24세, 항공), 신동준(남, 23세, 정보통신),
김보겸(남, 23세, 보병), 정윤재(남, 24세, 공병) 소위 등 총 10명에 이른다. 항공장
교로 임관하게 된 류동균 소위는 “아버지와 동생(61기 류동엽 생도)과 함께 3사
동문이 된 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라며, “육군항공 발전에 기여하는 장교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장교들

입교 전, 다양한 국가에서 유학 생활을 경험한 장교들도 있다. 손세원(여, 25세, 보병) 소위와 황재현(남, 27세, 정보) 소위는 캐나다에서, 김민영(여, 23세, 보병) 소위는 터키에서 유학했다. 이주원(남, 26세, 보병) 소위는 네덜란드에서, 윤상흠(남, 24세, 병참) 소위와 함훈규(남, 22세, 정보) 소위는 필리핀에서, 박지겸(남, 23세, 정

보) 소위는 중국에서 유학한 바 있다.

초등학교부터 12년간 캐나다에서 생활했던 황 소위는 “유학 경험과 3사에서 배운 군사적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예장교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소령 권영우

성적우수
수상자



대통령상

- 이상훈(남, 26세)
- 항공
- 컴퓨터과학과

국무총리상

- 고병찬(남, 24세)
- 항공
- 안보통상학과

국방부장관상

- 전호민 (남, 23세)
- 보병
- 심리학과

합참의장상

- 한기은(여, 23세)
- 정보
- 법정학과

연합사령관상

- 전우원(남, 23세)
- 보병
- 영어학과

육군참모총장상

- 홍영빈(남, 22세)
- 군사경찰
- 법정학과

해군참모총장상

- 이현석(남, 25세)
- 보병
- 법정학과

공군참모총장상

- 최승혁(남, 23세)
- 보병
- 전지공학과

학교장상

- 전희준(남, 23세)
- 보병
- 정치외교학과



62기 충성기초훈련



출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동기와 선배 생도
님들이 있다면 무엇이든해낼 수 있다는 걸 느끼
게 해준너무 소중한 5주였다! - 사관생도 박하현 -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음을 느끼게 해준 동기들과 어긋나지
않게 도와준 지도생도님들 덕분에 무시히 마칠 수 있었다.
- 사관생도 한예원 -

작은 불씨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이겨낸다면 큰불이 된다. 이처럼 충성기
초훈련을 이겨낸 저는 작은 불씨에서, 보다 큰불로 성장할 수 있었기에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 사관생도 김가남 -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꾸었고, 매일 아침 꿈에 다가갔다.
우린 그렇게 봄이 되었다. - 사관생도 조현빈 -

충성기초훈련에서 가장 큰 힘이 되준 것은 누군가의
뒷모습이었다. 살갓을 에는듯한 추위와 칼바람 앞에 당
당한 지도 생도님들의 뒷모습, 그리고 무거운 군장을
메고 걸어가는 동기들을 뒤편에서 바라보며 의지했다.
혼자였다면 해내지 못했을 가장 시린 겨울이자, 가장
많이 성장함을 느낀 겨울이었다. - 사관생도 권리경 -

학생이라는 애벌레에서 충성기초훈련이라는 번데기의
과정을 겪고 사관생도라는 나비가 되었다.
- 사관생도 임민후 -

충성기초훈련 기간을 보내며 처음 겪어보는 환경과 생
활 속에 쉬은 것은 하나 없었고 모든 것이 어색한 것 투
성이었다.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동기들과 함
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
간 속에 의미 있는 한 편의 추억을 만들게 되었고, 스스
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의미있던 시간이 된 것 같다.
- 사관생도 김예빈 -

영천의 추위 속에서 군인 정신으로 동기들과 단결하며
한계를 극복한 값진 경험이었다. - 사관생도 윤정민 -
내가 생각보다 많이 나아갔다는 걸 느꼈고 그럼에도 여
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동기들과 지도생도님들께 정
말 감사하다고 느낀다. 힘든 만큼 배운 것도 많았다!
- 사관생도 김민서 -

“열외 무” 체력이 저조했던 내가 이곳으로 발걸음하며
스스로 목표했던 것, 열외 없이 충성기초훈련을 마치는
것이였다. 분명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목표를 가지
고 나아가니 마침내 체력, 정신력이 많이 성장한 나를
볼 수 있었다. - 사관생도 이예스터 -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는 훈련 기간동안 노력을 들
이마시고 보람을 내뿔었다. 어느덧 사관생도로 첫발을
내딛는 우리. 당당해지자. 이제는 자신감, 자존심, 자부
심으로 살아가는 사관생도가 될 때이다.
- 사관생도 정우영 -

충성기초훈련, 이 단어가 저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나에게 성장, 인내로 새
겨져 있다. - 사관생도 전서영 -

나를 알았고, 동기를 알아 하나 되어 충성기초훈련 생
활을 이겨냈다고 생각한다. 소중하고 행복했다!
- 사관생도 김자수 -

충성기초훈련은 나의 목표를 향해 내딛던 첫 발자국이
었다. 충성기초훈련 간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새하얗던
내가 많은 것을 배움으로써 점점 채워져 나가고 있다.
- 사관생도 조하늬 -

우리, 입소식부터 호랑이굴을 지나, 개인화기, 행군, 명
예, 세심 의식과 입학식까지. 우리는 막 달구졌다.
우리, 불타오르시다! - 사관생도 박영균 -





두년복한 봄에 물든다

지난 2월 14일 62기 입학식과 61기 진학식이 열렸고, 2월 17일부터는 일반학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월 25일, 60기 생도들이 지랑스러운 육군의 장교로 임관했다. 이처럼 계절적으로 봄이 오고 있고, 입학과 진학, 개강, 임관 등 꿈과 희망이 가득 담긴 시점을 고려하여, 학교에서는 '충성대, 봄이 온다'라는 콘셉트 아래,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총 5일간 추억의 장, 경험의 장, 미래의 장이라는 3가지 테마로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

‘충성대, 봄이 온다’ 봄처럼 꿈과 희망이 피어오르다

추억의 장: 동기들과 함께한 시간을 되새기다.

2월 18일 군악대의 버스킹 공연에서는 ‘여행’, ‘나는 반딧불’, ‘벚꽃엔딩’,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등 총 7곡이 연주되었다. 공연을 보며 60기 생도들은 지난 2년간의 추억을 돌아보았고 61기와 62기 생도들에게는 새로운 학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17일과 18일 야간에는 60기 생도들은 중대별·학과별로 사은회를 열어 훈육장교들과 교수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았다. 또한 19일 오후에는 제39대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한 예비역 대장 이순진 장군의 ‘장교의 길’ 특별 강연이 진행되었다. 3사 14기인 이순진 예비역 대장은 후배들에게 “어렵고 힘들수록 앞장서는 장교가 되도록” 당부했다. 이어서 야간에는 60기의 임관과 61기, 62기의 새학기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종파별 교구장이 참석하여 생도들이 신앙 전력화로 내면을 다질 수 있도록 종교행사를 시행했다.

20일에는 특별한 공연도 펼쳐졌다. 군악대와 경북도립 교향악단의 협연 무대가 펼쳐졌으며, 생도 밴드 ‘카이거’, 3훈육관 최지인 대위, 생도 응원단 ‘시리우스’의 무대가 어우러져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뜻깊은 순간이 연출되었다.

경험의 장: 실무 역량을 완성하다

17일, 합동연합작전 전문가를 초청해 실시한 한미 연합 훈련 실무 교육에서는 생도들이 한미동맹의 발전 과정과 연합방위체제를 배우고, 실전에서 지휘 및 협조 관계를 학습했다.

이어서 18일, 전투준비안전단장이 주관한 사고 예방 교육도 진행되었다. 이 교육을 통해 장교로서의 첫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이를 예방할 방안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18일에는 생도대장의 지휘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생도들은 지휘관(자)으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되새길 수 있었다.



미래의 장: 마지막 점검, 그리고 새로운 출발

21일에는 영진전문대학교 뷰티융합과 홍정아 교수의 스타일링 요령 교육이 진행되어, 생도들은 장교로서의 품격 있는 외적 이미지를 갖추는 방법을 배웠다. 같은날 육군참모총장 직무대행 고창준 대장이 생도들에게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사명감을 담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군 내·외부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는 8명의 선배 장교들이 학교를 방문해 생도들과 소통하는 강연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생도 입교 전부터 장교로 성장하기까지의 경험과 노력,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을 아끼지 않았고, 생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어 미래를 꿈꾸게 하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학교장과의 소통 시간도 진행됐다. 사관생도들에게 훌륭한 군인이 되는 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는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하여 꾸준한 체력관리를 통해 인내심과 정신력이 길러진다고 설명했다. 생도생활 중 작은 습관이 모여 성장할 수 있으므로 행동으로 실천 하도록 당부하였다.



“ ‘충성대, 봄이 온다’를 통해 60기 생도들은 충성대에서 배운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할 수 있었고, 61기와 62기 생도들은 새 학기를 맞아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다. 봄을 맞이한 생도들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길 기원한다.

”



충성대의 봄 선배들의 한마디...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위해 달려라!
장교로서의 본질을 고민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술선수범 하는
사람이 되자!



대위 정정훈(52기)
재구상 수상, 제12보병사단 교육훈련장교

현실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될지 안될지는
해 봐야 알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위 김현진(52기)
미국 OAC 수료, 제8기 동사단 포대장

끝없는 고민과 분석,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라.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
결국 변화를 주도한다.



대위 이철홍(52기)
GP장, 제25보병사단 GOP 중대장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야 한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준비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다.
중요한 건 계속 배우고
준비하는 태도다!



대위 한경화(53기)
미국 OAC 수료, 한국군지원단 인사장교,
국방대 석사과정 재학중

군인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 당신!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대위 조상현(54기)
토익 만점, 프랑스 제병협동과정 수료, 제30기 갑여단 중대장

지금 내게 주어진
것부터 성실하게 해내자.
기회는 결국 인연을 통해
찾아온다.



대위 이석재(55기)
연세대 의대 위탁교육중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게으른 자에게
우연한 기회란 없다.



대위 고은비(55기)
3사관학교 훈육장교, 3사교 전임직 교수 선발,
중국 대학교 유학 예정

주도성 있는 삶을
가지고 그냥 한번 해봐라!
혹여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값진 경험으로 남는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라!



대위 배웅휘(56기)
국방대학교 통역장교



62기 입학 및 61기 진학식

지난 14일, 충성연병장에서 학교장 주관으로 학부모, 친지, 충동문화, 학교 관계자 등 약 2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기 사관생도 입학 및 61기 진학식을 거행했다.

이날 입학한 신입생도 435명은 지난 1월 6일부터 약 5주간의 충성기초훈련을 통해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군대예절과 기초전투기술을 함양하는 등 사관생도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행사는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입학신고 ▶입학증서 및 학년장 수여 ▶분열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입학한 62기 생도 중에는 화제의 인물도 많았다. 병역이행 명문 가집안인 김예은 생도(여, 22세)는 3사 출신 육군 중령 아버지의 뒤를 이어 3사 동문이 되었으며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김예은 생도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3사 생도로 입학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고,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해 생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병 복무를 마치고 부사관 복무에 이어 생도로 입교한 인원은 7명으로, 조재준(남, 23세) 생도는 5사단에서 병장으로 전역한 이후 및 같은 사단 공병대대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 중 '25년 1월, 3사 생도로 입학하게 되었다. 조재준 생도는 “군에 복무하면서 장교의 꿈을 꾸게 되었다.”라며 “다양한 신분으로



▲ 62기 박상우 생도가 아버지에게 입학증서를 받고 있다.

복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을 완수하고 솔선수범하는 장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도 국가대표 등 입대 전 국가대표 출신 생도들도 있다. 김보민 생도(23세)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유도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전국체전 출전과 홍콩 아시아 오픈컵 대회를 출전한 바 있으며, 김지은 생도(여, 23세)는 2024년 카바디 전국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이후 국가대

표로 활동했다.

해외유학 중 입학한 생도 중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아프리카 지역(우간다, 르완다)에서 14년 간 거주하고, 중국항공항천대학교 항공디자인과를 졸업 후 귀국하여 입교한 안승민 생도(여, 25세)는 “군인이었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장교가 되고 싶었는데, 3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가 되겠다”고 입학 소감을 밝혔다.

생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공과목과 군사학을 이수하고 졸업할 때 일반학과 군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되며,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확립한 정예 육군장교로 성장하게 된다.

소령 권영우



62기 입학 및 61기 진학식 이후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금 3사교 채널은 ▶ 인스타



hany_1191 2주 •
👍👍👍👍👍
♡ 1 💬 답글 달기

0woo_22 2주 •
명예로운 임관을 축하하며, 청원 60기 여러분들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
♡ 1 💬 답글 달기



mobile_needles135 4주 •
62기 생도들의 임관 결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임관 결을~ 지지해 주세요. 오늘 입학식 모습 멋졌습니다. 화이팅!!! 🙏
♡ 1 💬 답글 달기

nam920803 4주 •
62기 예비생도들을 축하합니다. 일년전 기온 막바지 행사 사진보며 가슴 뭉클하던 생각이 나네요. 3사관 생도님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
♡ 2 💬 답글 달기



wonseokcha920328 8주 •
파지 정확히하는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멋있네요.
♡ 1 💬 답글 달기

mobile_needles135 8주 •
유독 추운 요즘입니다. 다치지도 아프지도 말고 무사히 마치길요. 모두 장한 아들, 딸입니다 🙏
♡ 1 💬 답글 달기

captain_kimsangho 7주 •
생도는 국군의 기풍이다. 화이팅
♡ 10 💬 답글 달기

mobile_needles135 7주 •
오~ 아들 멋지다~ 🙏 60기 61기 62기 생도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끝까지 화이팅!!!!
♡ 2 💬 답글 달기



“3사 인스타와 3사 TV를 방문해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지금 3사교 채널은 ▶ 유튜브



육군3사관학교
명예 출입증
발급 안내

•발급 대상

학교 졸업생 또는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간부

※학교발전기여자 등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발급가능

•구비서류

1. 명예 출입증 발급 신청서, 보안 서약서
2. 증명사진(3x4) 1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영역사항 기재 요망) 1부
4. 회신용 우표 동봉(등기발송용)

•안내사항

1. 발송 주소: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 육군3사관학교 행정부 계획운영처
2.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www.kaay.mil.kr) 정보마당 > 학교방문 게시판참조

학교소식	학교방문
입학안내	학교방문준수
교육과정	학교방문준수
학력소속	명예출입증 신청
생도생활	사관생도
학교소식	신청서 접수 후
연구대안	명예출입증제작 후
정보마당	우편 발송
	(접수 후 30일 이내)

칼럼 I



소령 김 대 은
(인문학처심리학 교수)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끊임없이 결정을 내리고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스마트폰, 업무, 학업, 인간관계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의 주의를 끌고, 이로 인해 우리의 뇌는 과부하 상태에 놓이기 쉽다.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 멈춰 쉬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멈춤이 오히려 창의적 사고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인의 생활 역시 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긴장과 집중이 요구된다. 군인은 늘 신속한 판단과 행동을 요구되는 임무가 많으며,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기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임무 수행

중에는 한순간의 방심이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그러나 지속적인 긴장 상태는 정신적 피로를 누적시키고, 오히려 판단력과 수행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멍하니 있을 때가 뇌의 피로를 풀어주고 사고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뇌신경 과학 연구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우리 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내고

평소에는 주의 집중과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DMN이 활성화되면서 내적 사고, 기억 정리, 감정 조절이 이루어진다. 즉,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 뇌는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정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생도 생활은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와 지속적인 몰입이 요구되는데,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정신

잔잔한 흔들림 등을 바라보거나, 또는 수업 쉬는 시간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아무런 자극 없이 3~5분 동안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뇌가 과부하 상태에서 벗어나 정리하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론적으로, ‘멍 때리기’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정신적 회복과 효율적인 사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생도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훈련과 임무 수행뿐만 아니라 일정한 휴식과 내적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멍 때리기’를 통해 DMN이 활성화되면, 학습한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효과적으로 회복시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생도 생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몰입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휴식과 ‘멍 때리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신경과학이 알려주는 휴식의 가치

있다. 이는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 DMN)’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DMN은 우리가 외부 활동에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연결망을 의미한다. 주로 내측 전전두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후측 대상피질(posterior cingulate cortex), 내측 측두엽(medial temporal lobe) 등 여러 영역이 포함되며, 우리가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계획할 때,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 성찰을 할 때 활성화된다.

적 피로가 누적되어 학업과 전술적 사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생도 생활간 효율적인 임무 수행과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바쁜 생도 생활 속에서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가지는 실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국정에 펼쳐진 자연 속에서 걷거나,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자연(천천히 흐르는 구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칼럼 II



대위 이 원 석
(이학처 화학환경과학 교수)

육군 소위로 임관한 60기 후배 장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사관학교에서의 수련 과정을 견뎌낸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 갓 임관한 소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도 그동안 말로만 전해 들었던 야전 소대장으로서의 첫 임무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후배 장교들에게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꼭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

군 생활 내내 ‘솔선수범’이라는 말은 리더십의 핵심 덕목으로 강조되었다. 나 역시 생도 시절부터 신입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거치는 동안 수도 없이 들었다. 임관 후 야전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꼭 솔선수범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돌이켜보면, 당시 내가 이해한 솔선수범은 영화 ‘위 위 솔저스’ 속 무어 중령의 말, ‘가장 먼저 전장에 앞장

서고, 가장 늦게 떠나며,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것’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즉, 단순히 지시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부하들과 함께 어려운 일을 수행하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솔선수범이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 개념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전방 GOP 소초장 임무 수행 시, 경제작전 외에도 제초 작업, 철책 보수,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임무가 있었다.

단순히 ‘부하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후 소초장으로서 직접 수행할 일과 위임할 일을 구분했고, 소초 운영이 점차 안정되었다.

중위 때 GP장을 맡았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GP 주변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고, 나는 용사들과 함께 직접 GP 주변에 물을 뿌리며 철

착하여 용사들과 현장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지만, 사실 GP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종합하고 보고하며, 상급 부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거치면서 나는 솔선수범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리더가 단순히 부하들과 함께 움직이고 몸을 부딪히는 것만이 솔선수범은 아니다. 솔선수범을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항상 부하들보다 더 많이 알고, 앞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조직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리더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조직을 위해 가장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때로는 직접 현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전략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순간도 있다.

이제 나는 솔선수범을 단순히 ‘현장에서 먼저 행동하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진정한 솔선수범이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길임을 후배 장교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솔선수범

나는 지시만 내리는 리더가 아닌, 용사들과 함께 현장에서 솔선수범 하고자 했다. 여름날 소초 제초 작업이 있으면 직접 낫을 들었고, 대기초소 문이 고장 나면 드릴을 들고 수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초장으로서 정작 챙겨야 할 핵심 임무인 경제작전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몸은 하나인데 모든 일을 챙길 수는 없었다. 결국 대대에서는 소초 운영과 관련된 지적 사항들이 많아졌고, 각종 점검에서도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그제야 깨달았다. 리더로서 솔선수범은

책, 탄약고 등 시설물에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연대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 GP장이 즉시 상황실에서 대응하라고 지시하셨다.

상황실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GP의 다른 간부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상급 부대에서도 명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오히려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나는 표면적인 솔선수범의 의미에 집

명예 칼럼리스트 칼럼



김 병 일 이사장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념 갈등은 날로 더 날카로워지고 빈부갈등과 지역갈등도 여전한데, 세대갈등과 남녀갈등까지 격화되고 있다. 이러다가 구성원들은 스트레스가 쌓여 건강과 즐거움은 잃고, 우리 사회도 끝내 쇠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가정에서는 부모자식간 세대갈등과 부부간 남녀갈등 그리고 형제간 다툼이 수시로 일어나고, 학교에서는 사제간 세대갈등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 사이의 갈등으로 학폭 문제가 수시로 터져 나온다. 직장도 마찬가지여서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 세대갈등과 동료간 남녀갈등이 빈발하고, 심지어는 전우애로 똘똘 뭉쳐야 하는 군대도 예전과 달리 상관과 부하간의 갈등이 병영을 넘어 사회로까지 들려온다.

이렇게 되다 보니 한국인 모두는 언제 어디서든 갈등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갖가지 불화로 사회가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갈등 해소가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나서야 할까? 남에게 기대기보다 각자 먼저 노력하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타일러도 잘 따르지 않고 오히려 감정만 상해져 관계가 더 멀어지기 십상이다. 퇴계는 “형제간에도 충고해 달라고 하기 전에는 하지 말라”고 했다. 기분만 상하기 쉬워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

갈등을 푸는 주인공이 되자

고 여겼기 때문이다. 공자 또한 “일이 잘 못되었을 때 군자는 남 탓을 하지 않고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다”고 하였다. 괴를 나는 가정에서도 이렇진대 남남이 모인 학교나 직장, 군대에서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다면 답은 하나이다. 남의 탓을 전제하는 충고나 조언보다 상대의 인격을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 갈등의 출발점에는 흔히 ‘남이 그르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은 과연 옳을까? 퇴계는 “이 세상에 옳은 진리가 한없이 많은데 어찌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남을 공격하기보다는 늘 자신의 책무를 잊지 말라고 이르며 스스로 실천했다.

갈등의 원인을 없애려면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실천해야 할까? 전통시대 윤리 규범인 오륜(五倫)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날의 인간관계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먼저, 부자유친(父子有親)으로 표현되는 부모자식간의 사랑은 동물도 하는 일반적인 내리사랑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자식을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의 사랑에 감화되어 평생 효도할 것이다. 군신유의(君臣有義)도 마찬가지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국가와 국민의 관계로 바꾸어

놓으면 이것은 곧 주권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각자 올바르게 처신하라는 뜻이 된다. 부부유별(夫婦有別)은 어떤가? 남편과 아내는 고유한 역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양성평등에 대한 권고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사는 경제적 활동과 직결된 ‘바깥일’과 가정의 일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집안일’이 병존한다. 부부유별은 이 두 영역의 일은 서로 구별되며, 따라서 그 책임자의 역할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일을 누가 하든 부부는 상대의 역할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은 자연스럽게 화목해질 것이다.

어른과 아이 사이의 순서를 강조하는 장유유서(長幼有序)는 잘못 이해하면 어

른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으로 비쳐 세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른은 아이를 아끼고 아이는 어른을 공경하는 서로 보듬는 문화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어른과 아이 모두 행복해지는 길임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과 아이를 어떤 조직이든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로 생각해도 좋다. 마지막 봉우유신(朋友有信)에 대해서는 새삼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신의는 예나 지금이나 친구 관계에서 요청되는 제일의 덕목이기 때문이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거나 이용한다면 누가 나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겠는가?

이처럼 오늘날에도 요륜을 잘 실천하면 갈등이 생길 리 없다. 내가 먼저 실천해 나간다면 상대도 나뿐만 아니라 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정과 학교, 직장군대 그리고 마침내는 국가와 인류 사회까지 이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여 시내를 이루는 적수성천(滴水成川)의 이치처럼 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그 결과 첨단과학의 혜택도 누리겠지만, AI가 인간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함에 따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인간이 가장 확실하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은 AI가 할 수 없는 따뜻한 인품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요륜은 언제나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학교발전자문위원 칼럼



최 재 봉 교수
(성균관대학교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교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디어 전투 로봇이 등장했다. 진지탈환 작전에 투입된 로봇은 매우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으며 목표했던 진지도 접수할 수 있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다. 인간과의 전투에 보병 로봇이 투입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러-우 전쟁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AI 전쟁 시대의 개막을 알렸는데 어느새 전투 로봇까지 실전에 등장한 것이다. 그동안 휴머노이드의 발전을 고려하면 사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2022년 11월 30일 혜성같이 등장한 생성형 AI, 챗GPT가 만들어낸 변화는 산업계를 넘어 이제 방위산업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다. 우선 자본의 집중이 압도적이다. 2024년 상반기 10대 AI대표기업(애플, 엔비디아, MS,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 TSMC, 텐센트)의 시가총액 합계는 2경3천조원이었는데

2025년 1월 14일에는 3경3백조원까지 치솟았다. 단 6개월 만에 무려 7천조원의 자본이 AI라는 기술에 쏟아진 것이다. 자본은 인재를 끌어 모으고 엄청난 속도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낸다. 가장 앞서가는 것은 미국이지만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지난 1월 2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언론 브리핑에서 ‘스타게이트’라는 720조원 짜리 초거대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중국이 딥시크라는 스타트업에 등장시켜 바

으로도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줬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이 AI에 대해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1만장 이상의 GPU를 확보해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딥시크의 메기 효과는 정말 고마울 지경이다.

미-중이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 AI기술을 선점하려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바로 앞으로 30년의 패권이 AI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향후 산업생태계의 질서를

AI 혁명 시대를 맞는 국방 세계관의 대전환

로 전환을 끼어들어 버렸다.

딥시크는 중국의 토종 AI 스타트업인데 이들이 발표한 딥시크 V3와 R1이 오픈 AI 챗GPT-4보다 더 나은 시험 성적을 거두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1월 28일 딥시크 충격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AI 기업들의 주가가 대폭락했고 미국의 독점적 AI 권력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와 함께 AI 버블 붕괴론까지 등장했다. 물론 한달 정도 지나면서 딥시크가 그리 뛰어난 기술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AI 기업들의 주가도 쇼크 이전으로 회복했다. 어쨌든 딥시크의 등장으로 세계 각국의 AI 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긴 것만은 분명하다.

딥시크 충격 이후 우리나라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는데 소자본

재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임체인저는 AI 기술력이다. 산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위산업인데 이제 국방력의 지표도 AI 역량으로 평가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도 산업용 휴머노이드뿐 아니라 전투 로봇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전투 로봇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첨단 무기에는 이미 다양한 AI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

AI 기술이 발전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AI 반도체 개발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미국은 오픈AI,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AI 소프트웨어 산업을 리드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AI 반도체를 거의 독점 생산 중이다. 경쟁 중인 중국은 소프트웨어 면에서는 많이 쫓아갔지만 AI 반도체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AI 반도체는 엔

비디아가 설계하고 메인칩 생산을 대만 TSMC 그리고, HBM(메모리)을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다. 전 세계 딱 세 나라만 가능한 기술, 그만큼 어려운 최첨단 기술이라는 뜻이다. 이 기술을 조합하면 온디바이스(On-device) AI라는 기술이 가능하는데 실제로 삼성전자는 갤럭시S24에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접목해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방위산업에 이 기술이 도입되면 공격형 드론이나 미사일 등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고 지휘 통제 시스템과의 소통도 더욱 정밀하고 완벽해질 수 있다. 모든 무기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패권을 추구하는 미-중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그런데 이 기술을 완성하려면 AI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탄탄한 제조업이 필수적이다. 이 모든 인프라를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 기술만큼은 우리가 더 우월하다. 미-중 AI 패권 경쟁에서 트럼프에게 우리가 매우 매력적인 동맹 대상이라고 어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각성이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이 부족하며 어떤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지 세밀한 플랜을 짤려면 AI 혁명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주 좋은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직분별로 AI에 대한 투자와 학습을 늘려야 할 때다. 각성하자, 코리아!

2025 트렌드 노트

러닝, 클라이밍, 프리다이빙 각자만의 성지를 찾아가는 삶으로



정 석 환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팀 연구원

각자의 세계관, 그 세계관의 중심이 되는 곳 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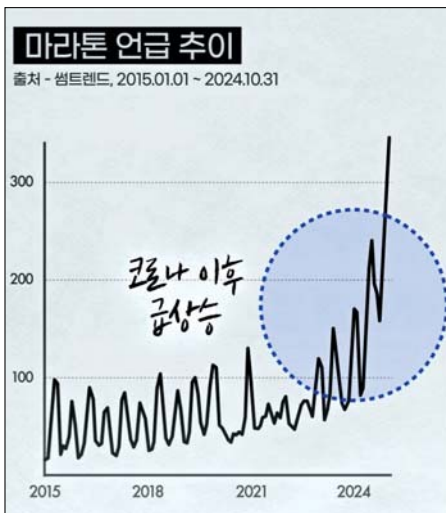
‘성지’라는 키워드는 종교 세계관에서만 존재해 왔지만 이제는 종교뿐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언급되고 있다.

헬스에서 러닝, 클라이밍, 프리다이빙으로

여가 이제 삶의 일부분이 아닌 인생이 되는 것

세부 카테고리 들어와서 최근 가장 중요한 ‘여가의 성지’에 대해 살펴보자. 여가 성지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클라이밍 성지’, ‘러닝 성지’, ‘서핑 성지’, ‘다이빙 성지’ 등 스포츠에 해당하는 성지들이다. 이러한 여가 성지의 조건은 무엇일까? 잠시 여가 트렌드의 변화를 살펴보자. 수년간 지속되었던 헬스 열풍이 지나고 다양한 스포츠들이 현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 전후로 가장 증가율이 컸던 스포츠들은 순서대로 ‘러닝’, ‘클라이밍’, ‘프리다이빙’으로 이 세 스포츠의 공통점은 성공이 아니라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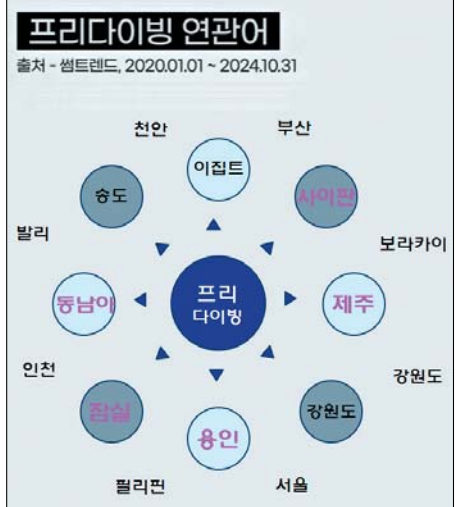
마라톤과 페이스의 상승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러닝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점이다. 러닝 자체가 목적이 되어 마라톤을 위한 러닝을 위한 러닝을 한다면 러닝은 진화를 거듭한다. 다 이어트와 러닝의 관계처럼 목적과 수단이라는 종속된 굴레 안에서 반복되는 대신 끝이 없는 선형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마치 큰 틀에서 이야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내듯 목적이 된 러닝은 더 큰 심상을 제시하며 중단 없이 이어진다. 혼자 달리다가 동네 크루로 지역 마라톤으로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으로 런던 마라톤으로 베를린 마라톤으로 이렇게 10년, 20년을 기획하는 목적이 된다.

프리다이빙의 성지, 이집트 다합 클라이밍의 성지, 요세미티 엘캐피탄 여가의 십년자대계, 10년을 준비해서 세계로 나가는 사람들

러닝과 같이 코로나 전후 큰 폭으로 상승한 ‘프리다이빙’과 ‘클라이밍’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여가 활동에 있어서 원데이 클래스 소비를 하지 않고, 긴 호흡의 계획을 세우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프리다이빙의 연관 지역을 살펴보자. ‘잠실’, ‘용인’, ‘제주’, ‘동남야’, ‘사이판’, ‘이집트’를 주목해 보자. 이 지역들은 대표적인 프리다이빙의 코스로 볼 수 있다. 잠실 종합운동장의 센터에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획득하고, 용인 디스테이션에서 훈련하고, 제주에서 실전을 즐기며, 해외로 나가는 코스이다. 그리고 다양한 인근 해외의 성지에서도 경험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집트의 다

합에 가는 것이다. 이집트의 다합은 전 세계의 프리다이빙들이 모이는 곳으로 악명 또한 유명하다. 이러한 선망되는 최종 목적지라는 것이 제시되면 사람들이 그 도달을 위한 긴 호흡의 원동력을 얻는다는 것이다. 클라이밍도 비슷한 속성을 공유한다. 도시에 있는 실내 암벽장에서 시작하지만, 차츰 실제 산에 가셔도 경험을 한 후, 해외에 있는 클라이밍, 자연 암벽 성지에 대해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프리스로>라는 로프 없이 오르는 클라이머, 알렉스 호놀드

의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엘캐피탄, 요세미티, 락클라이밍 세계관의 중심”. 특정 종교의 세계관 속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듯 클라이밍의 세계관 속 중심은 엘캐피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클라이머들에게는 10년을 계획하는 상상력을 제공하게 된다.



성장에 대한 뚜렷한 상상력이 선택과 행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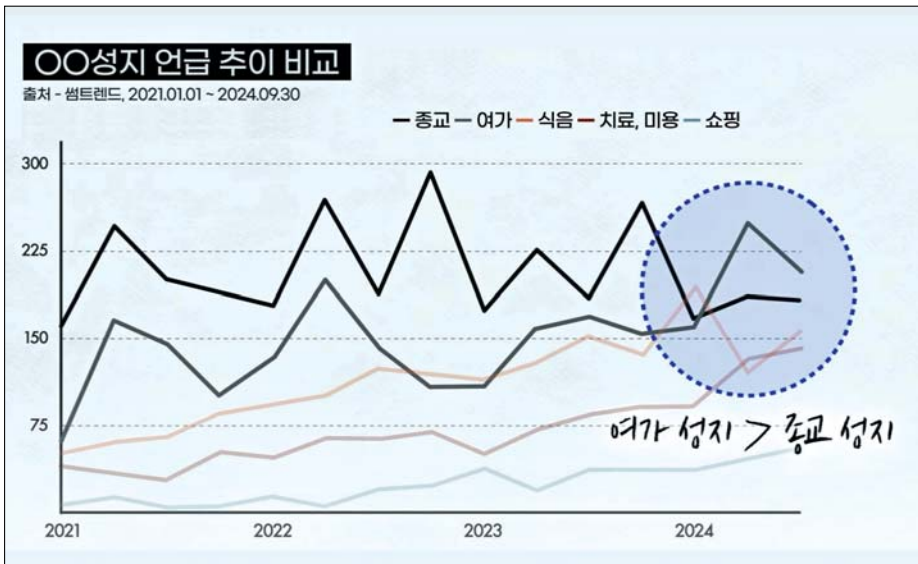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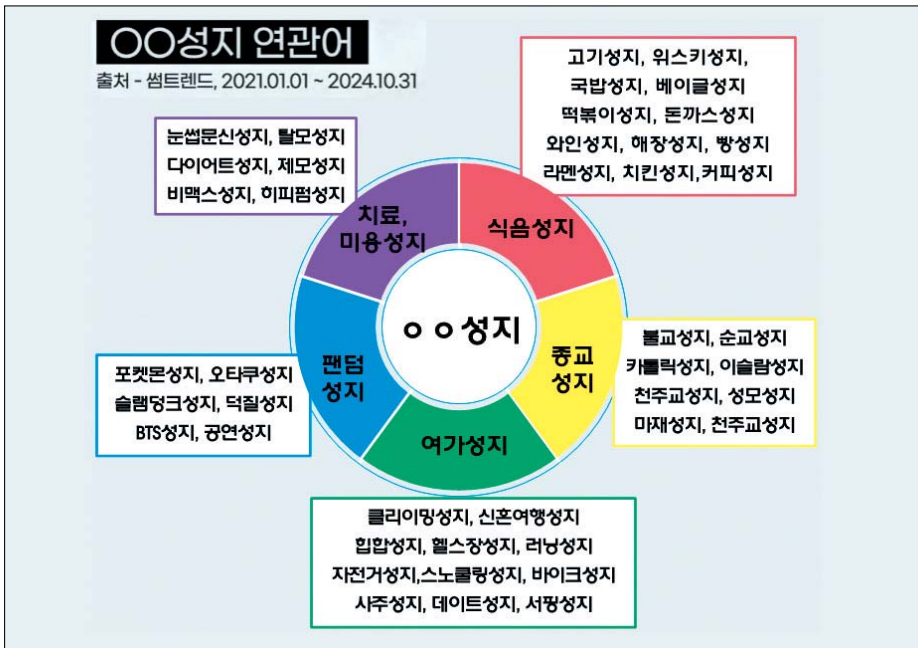
‘성지’는 그 상상력의 출처이자 목적이 되는 것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

러닝, 클라이밍, 프리다이빙은 현재 가장 핫한 운동이라는 것 외에도 종착지가 굉장히 멀리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듯 여가는 단발성 체험에 머물지 않고 반복하면서 레벨을 올리는 취미가 된다.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으며 잠실 수영장에서 동해, 강릉 속초 원도로 범위를 넓히고 마침내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집트 다합 등 해외 프리다이빙 명소를 여행을 기획한다면 프리다이빙은 취미일까, 여가일까, 여행일까, 그의 인생일까? 가족, 일, 그 사이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나만의 그 무엇 평생에 걸쳐 지속하고 싶은 그 무엇을 여가에서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

나의 애호에도 세계관이 있는지, 그 세계관에 여정이 있고 성지가 있는지, 혹은 브랜드라면 우리 브랜드는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는지는 이 시대의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가장 처음으로 언급되고 가장 언급 빈도가 높은 곳은 식음의 성지이다. 대표적으로는 베이글 성지, 떡볶이 성지, 와인 성지, 커피 성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빵지순례’라는 말도 밈의 형태로 퍼져서 전국 빵의 성지를 찾아가는 지도도 제작되었다.

또한 2023년 초 개봉한 슬램덩크 열풍 덕에 ‘슬램덩크 성지’ 또한 발견되었다. 원작의 주인공 공강백호가 서있던 건물목인 가마쿠라코코마에 역은 줄을 서야 할 정도이며, 심지어 이제는 영화 버전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주인공 송태섭의 고향인 오키나와, 초지도 해변까지 찾아간다.

슬램덩크 세계관에서 성지이기 때문에 기꺼이 찾아가고 그 길을 공유한다.

장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획과 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루의 도움을 받는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러닝에 대해 살펴보자. 러닝과 관련해 지난 3년간 상승한 키워드는 ‘땀’, ‘속도’, ‘기록’, ‘목표’, ‘페이스’, ‘마라톤’이고 하락한 키워드는 ‘건강’, ‘체중’, ‘감량’, ‘다이어트’다. 하락하는 키워드들은 러닝이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선택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을 통한 건강 증진이 목적이며 러닝이 그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이때의 러닝은 다이어트라는 목적을 달성하면 필요가 없어진다. 다이어트라는 목적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면 러닝도 그 굴레 안에서 영속하겠지만 러닝 자체가 진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문(同門)의 소리 I



대위박 면 호(3사 52기/공병)
연세대학교위탁교육(건설환경공학석사)

- 신임장교지휘참모과정 (교육사령관 상장)
- 6사단 공병대대 소대장 작전장교
- 대위 지휘참모과정 (교육사령관 상장)
- 60사단 공병대대 중대장
- 연세대 건설환경공학 석사과정 위탁교육
- 대한토목학회 우수논문상
- 한국물환경학회 우수논문수상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게임과 오락이 전부였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육사 정복을 입고 있는 친형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성인이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동안의 나태했던 삶이 후회되었지만, 단순한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부터 내 삶의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도전이 만들어낸 나의 길

아버지와 형이 걷고 있는 군인의 길을 생각하며, 나도 이 길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대학 진학 이후 '사회인의 생활은 대학 졸업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마음먹었고 그렇게 결심하자 '지금까지 재밌게 놀았으니, 이제는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그 노력의 결실로 3사관학교 예비생도로 합격하게 되었고, 입학 전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갔다.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3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코피가 날 정도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나의 한계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잠을 줄이고, 철저한 학습을 반복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공부하는 것이 점점 재미있어졌다. 성취감이 쌓이면서 부모님도 기뻐하셨고, 그 기쁨이 다시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졸업 시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이후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에서도 도전을 이어갔다. 사관학교에서 익힌 학습법과 노력을 바탕으로 또 한 번 한계를 시험해 보았고,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할 수 있었다. 그때 느낀 점은, 나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은 나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긍정적인 습관과 성장

아전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공부하면서 만들어진 습관과 긍정적인 가치관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동기들, 선·후배, 상급자들에게 인정 받으며 아전에서 최고선을 다했고, 대위 지휘참모과정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할 수 있었다. 이후 중대장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군 위탁 제도를 통해 민간 대학 석사 과정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공부의 재미를 알게 되었고, 긍정적인 사고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노력의 가치는 절대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코피가 날 정도로 도전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한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후회할 만큼 실패한 적이 없었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 역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성장해왔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읽는 생도들이, 자신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고 한 번쯤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코피가 날 정도로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해낸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작은 도전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 그런 태도가 쌓이면 결국 성취감을 얻게 되고, 뒤돌아 보았을 때 후회 없는 길을 걸어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의 한 구절을 남기며 글을 마친다.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동문(同門)의 소리 II



대위 이 종 혁(3사 53기/보병)
55사단 171여단 기동중대장

- 28사단 수색대대 소대장, 작전장교
- 육군훈련소 제30교육연대 중대장, 교육장교
- 55사단 171여단 기동중대장
- 특공수색 교육과정 1등(특수전사령관상)
- 6군단 TSFO 소대장 교육과정 1등 (6포병여단장상)
- DMZ산불 진화작전 공공(6군단장 표창)
- '19년 선봉소대 / '23년 선봉중대
- '23년 전반기 육군훈련소 최우수교관 (육군훈련소장상)
- '24년 후반기, '25년 전반기, 55사단 최우수 중대 선발(55사단장상)

리더십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생도 생활부터 체득한 솔선수범은 언제 어디서나 빛을 발하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부하들도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이 글을 통해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솔선수범의 리더십이 야전을 바꾼다

오만축광(五萬燭光)에 빛나는 소위로 임관한 후 생도와 장교의 차이는 무엇이고, 야전에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정답을 찾을 수 없었고, 그 상태로 첫 부대인 28사단 수색대대로 가게 되었다. 전입 후 약 한 달 만에 나는 그 정답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정답을 찾을 필요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이유는 생도 시절부터 익혀온 솔선수범의 리더십이 이미 언제, 어디서나 발휘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대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소대원들의 이름조차 다 외우지 못한 상태에서 유격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는 늘 그래왔듯이, 소대장이 아니라 소대장 교육생이라는 생각으로 임했다. 과거에도 장애물 통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저 없이 첫 번째 실습자로 나섰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내가 깊이 고민한 결과도 아니었다. 2년간의 생도 생활에서 체득된 자연스러운 사고방식과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유격훈련을 마친 후, 나는 당연하게 여겼던 솔선수범의 태도가 소대원들에게 감동을 주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감동이 소대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과 DMZ작전에서 성과로 이어졌고, 소대원 전원이 특급전사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결실을 거두면서 선봉소대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두 번째 부대인 육군훈련소에서도 솔선수범의 가치는 변함없이 빛을 발휘하였다. 나는 중대장이자 당연히 훈련병들과 함께 체력단련을 하고 체력측정 때는 항상 마지막 훈련병과 함께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대열의 맨 뒤에서 마지막 훈련병과 함께 들어갔다. 처음에는 '중대장도 뛰네?'라는 훈련병들의 반응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중대장이 뛰기에 나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훈련병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을 보며 오히려 내가 감동을 받았으며 역시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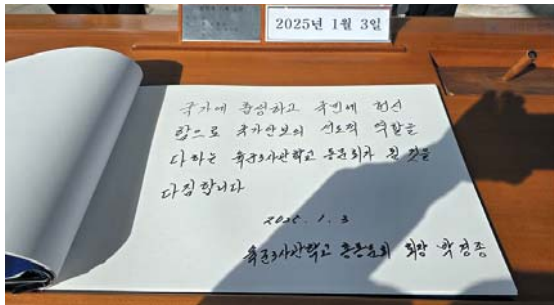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훈련장으로 훈련병을 인솔하던 중, 몇 명이 대열에서 뒤쳐졌고, 갑자기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힘들어하는 훈련병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군장을 대신 짊어졌다. 빗속에서 여러 개의 군장을 메고 걸었지만, 이상하게도 힘들보다는 알 수 없는 기분 좋은 힘이 솟았다. 언제나 이런 행동이 자연스레 습관처럼 나왔고, 군에 처음 들어온 훈련병들에게 '군인, 그리고 장교란 무엇인가'를 직접 가르쳐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내가 근무 중인 55사단 171여단 기동중대는 사단 유일의 독립중대이다. 내가 주둔지 부대장으로서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 모든 분야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뿐 아니라, 기동중대인 만큼 교육훈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대장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사단에서 주관하는 최우수중대 경연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부대의 임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연대회 준비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중대원들과 함께 산악지 역전투와 야간매복 전투사격 훈련에 집중한 결과 사단 최우수 중대에 선발되었다. 결국 언제나 몸에 배어 있는 솔선수범의 사고와 행동이 성공으로 이끌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도 시절부터 나는 나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보다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선택하여 올바른 장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해왔다. 그런 태도가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이 나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며, 결국 '솔선수범'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임을 주변에 증명해 주었다. 생도들이 이 글을 읽고 지금 바로 솔선수범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내가 이룬 성과와 영광보다 더 값진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솔선수범을 응원하고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 2025년 시무식 및 현충원 참배



지난 1월 3일 박경종(20기) 총동문회장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2025년 시무식 및 현충원 참배 행사를 엄숙하게 거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역대 총동문회장(11대 박진규, 14대 정인하), 총동문회 임원, 각 기수별 회장단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어진

시무식과 오찬에서는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의 2025년 역점 사업으로 ▶모교 발전 및 동문 위상 제고를 위한 군 인사법 개정 ▶생도 모집·홍보 방안 ▶전역 후배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박경종 총동문회장은 신년사에서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모교와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 애쓴 모든 동문께 감사드린다”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3사인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자”고 당부했다. **3사 총동문회**



60기 동기회 평생 동문 협약식 및 교류 행사



지난 2월 24일 총동문회는 모교를 방문해 60기 동기회와 평생 동문 협약식 및 교류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수석부회장 서정열(20기), 총괄/기획위원장 유영수(20기), 대외협력위원장 유병직(25기), 동기회 감사 박시범(29기) 등 총동문회 임원과 동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992년 설립된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나 모임이 아니라 동문의 화합과 단결, 발전을 위한 조직이다. 동문에게는 인생의 길잡이이자, 모교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전통을 이어왔다. 평생 동문 협약식 및 교류 행사는 1기부터 59

기까지의 동기회를 대표하는 총동문회와 소위로 임관하는 60기 사관생도들이 “국적과 이름은 바꿀 수 있어도 육군3사관학교 출신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신념 아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동문으로 함께 하자는 의미 깊은 행사이다.

행사 전, 학교장과 접견한 총동문회는 위문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모교와의 유대를 강화했다. 이어 차담을 통해 2026학년도 사관생도 선발 모집·홍보 추진 방향과 실태 등을 공유하고, 총동문회의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본 행사에서는 박경종(20기) 총동문회장과 김현

준(60기) 동기회장의 평생 동문 협약을 체결했다. 총동문회는 60기 동기회 설립 지원을 위한 준비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하였다.

한편, 박경종 총동문회장은 60기 사관생도들에게 동문회의 설립 목적과 역사, 모교와의 관계 등을 설명하며, 자신의 인생 여정을 기초로 꿈과 긍정적 사고,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군복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총동문회는 후배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든든한 창구가 될 것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였다. **3사 총동문회**



총동문회 제43차 정기총회 개최



지난 3월 7일, 총동문회 제43차 정기총회가 공군호텔 2층 사파이어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정기총회는 매년 동문회 임원들이 지난해 예산 결산과 당해 연도 사업 및 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이번 정기총회는 역대 회장을 비롯하여 ‘자랑스러운 3사인 상’ 및 공로패 수상자, 기별·지역별 동문회, 동호회, 직능 단체, 총동문회 임원 등 총 153명이 행사에 참석하여 그 어느 해 보다 열기를 보였다. 특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20~30기대 동문들이 대거 참석해 총동문회의 미래를 밝게 했다.

총회 의결전 주요 행사로 ‘자랑스러운 3사인 상’에 5기 신장균, 14기 성수환, 18기 조형호, 19기 박주왕, 23기 김송학, 24기 장세호 동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5기 오준섭, 8기 이강학, 14기 이종학, 22기 김동길, 26기 조남동, 31기 박종현 동문은 공로패를 받았다.

이어진 총회 의결에서는 2024년 사업 및 예산 결산, 2025년 사업 및 예산안과 2025년 동문회관 예산 승인안, 총동문회 사단법인 설립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종신 회비성 의무 기금 참여 확대안은 부결되었다. 특히, 총동문회 사단법인 설립 승인

안은 비영리 단체인 총동문회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박경종 총동문회장은 인사말에서 총동문회는 오직 동문의 화합과 단결, 동문과 모교의 발전, 동문의 위상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총동문회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 지원을 주시는 모든 동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항상 새롭게 변화하고 한 단계 전진해 나아가는 역사 깊은 총동문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3사 총동문회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5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025. 1. 1 ~ 3. 10. 까지 기부현황입니다.

※기간 외기부명단은 재단홈페이지, 충성대아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 (총 기부액), 단위 : 만원

■ 단체

3사 60기 동기회 2,000만원, 국민은행 영천지점 1,000만원 (1억 3,700만원)

■ 학교발전 동참 특별기부자('25. 1.1 ~ 3. 10. 기부현황)

김호길(육사#48 2(95), 두석적(육사#51) 2(254), 문대섭(육사#52) 1(1), 변용성(육사#53 3(146), 김대영(육사#59 3(213), 문은석(육사#59 3(119), 김진찬(육사#61) 3(94), 홍희중(육사#61) 3(142), 홍인재(육사#63 3(75), 문준호(육사#67) 2(82), 정운혁(육사#78 3(53), 한덕수(학군#26 2(151), 남기웅(학군#29 3(57), 구희곤(학군#32 6(192), 박희성(학군#36 8(18), 송경재(학군#37 3(163), 이정훈(학군#38 3(122), 정우람(학군#46 3(63), 홍현신(학군#48 3(63), 유성국(학군#54 3(20), 최재호(학사#29 3(169), 임도현(학사#54 2(147), 구주현(학사#55 3(71), 성현애(학사#56 3(91), 심정현(학사#58) 3(79), 박철진(간부#23) 4(4), 최윤정(간사#38) 3(84), 송승현(원사) 3(26), 강필승(군무원) 3(33), 이수진(군무원) 3(55), 최지욱(군무원) 2(19), 정시연(군무원) 3(66)

■ 졸업생 가족('25. 1.1 ~ 3. 10. 기부현황)

조경해(45 황정태 모) 10(1020), 백인숙(47 모) 3(80), 안순봉(51 박상응 모) 30(1380), 김현미(52 오치원 모) 2(91), 이영미(52 황성규 모) 6(424), 임성영(52 임강민 부) 3(24), 정정화(52 조강현 모) 2(384), 박일식(53 정필승 모) 3(187), 정의숙(54 홍석규 모) 100(400), 서완수(55 서지찬 부) 4(166), 정원식(55 정준영 부) 2(157), 송학빈(56 송용준 부) 2(106), 정희숙(56배우회 모) 30(1800), 조재훈(56 조성진 부) 90(1010), 김근택(57 김광진 부) 4(110), 김수말(57 김준모 모) 4(106), 박경석(57 박찬환 부) 4(118), 오유미(57 김주현 모) 4(114), 이동희(57 박찬환 모) 9(164), 김찬영(58 김범수 부) 10(185), 최걸순(58 최승환 부) 2(59), 정신(59 김종현 모) 2(36), 조철만(59 조현웅 부) 6(74), 김선혜(60 정진호 모) 10(131), 손학권(60 손세원 부) 40(480), 임성영(60 임상민 부) 3(24), 장은심(60 김수호 모) 10(220), 정미경(60 이원종 모) 5(120), 정지한(60정수호 부) 10(110), 홍혜숙(60김성호 모) 2(25)

■ 재학생 부모('25. 1.1 ~ 3. 10. 기부현황)

▶ 4학년부모

김혁 190(502), 이지연 100(200), 장운익 101(201), 전근병 50(50), 최영순 30(130), 최정호 2(12)

▶ 3학년부모

권세라 100(100), 김경숙 100(100), 김경택 500(500), 김수현 10(10), 김홍진 10(10), 백종제 100(100), 신정수 10(10), 전용희 10(10), 전은옥 33, 제윤일 100(100), 한상민 50(50), 유은서 5(5)

■ 졸업생('25. 1.1 ~ 3. 10. 기부현황)

▶ 1기 김웅하 10(285), 남훈조 20(158), 민석식 12(161), 이기원 1(572), 임관택 3(123), 최익환 3(123)

▶ 2기 김진규 12(116), 윤경혁 10(670)

▶ 3기 장영집 20(340)

▶ 5기 김일순 10(510)

▶ 9기 권영호 10(630), 김현기 6(1308), 김희숙 30(250), 윤지환 6(267), 이환희 5(130), 최병학 10(1445)

▶ 13기 문성목 20(660)

▶ 14기 김길영 2(140), 김종환 2(98), 안호 20(2428), 이순진 10(1,070), 이용진 10(580)

▶ 15기 김성연 2(568)

▶ 16기 이종우 2(202), 황병태 4(357)

▶ 17기 조남인 2(103)

▶ 18기 구연덕 2(172), 금용백 6(696), 노희태 3(279), 이기환 2(67), 진기상 6(1162)

▶ 19기 김익수 6(269), 이종형 6(380), 이창호 6(702), 홍성식 3(238), 황영태 6(236)

▶ 20기 박권순 4(232), 박동순 4(153)

▶ 21기 신철수 4(1,346), 이정문 4(290)

▶ 22기 노치영 50(70), 이진성 6(299), 정경호 2(87), 조태환 4(221), 천병규 6(534)

▶ 23기 김영덕 50(1,080), 김태일 2(272), 신영찬 2(113), 오승국 4(348), 정철재 4(265), 최승환 2(49), 허강수 4(363)

▶ 24기 박종만 4(136), 권오봉 2(256), 김도협 2(274), 김성래 4(116), 모경원 3(270), 박세철 3(113), 박찬웅 2(73), 방성대 6(265), 이문희 2(134), 정정현 3(234), 홍성희 4(128)

▶ 25기 김달호 3(12), 문봉성 6(271), 장무수 3(92), 전희준 2(347), 홍은표 2(241)

▶ 26기 고창준 2(510), 신태영 2(135), 양성안 2(38), 유근환 2(78), 이덕우 2(169), 이완주 6(238), 이태인 6(148), 임우영 3(287)

▶ 27기 김관수 9(208), 김덕중 3(111), 김용범 4(92), 김지덕 3(65), 김호복 9(419), 나현민 4(244), 석수열 2(87), 원희문 6(354), 이희순 2(282), 정철균 2(86)

▶ 28기 권승영 1(46), 권양철 4(163), 박용섭 4(257), 유정일 2(77), 윤석찬 2(183)

▶ 29기 김강식 2(287), 김태영 6(116), 박성훈 30(223), 박태용 3(175), 이상일 3(231), 정해균 3(17), 최영태 40(200), 최안섭 2(154), 현대식 3(193), 황재식 2(24)

▶ 30기 김광석 6(88), 김동혁 10(160), 김홍빈 4(57), 남진오 3(98), 이용학 1(17), 홍성범 3(80), 함민호 3(143)

▶ 31기 권동호 4(144), 김민식 6(178), 김영태 2(223), 김태희 3(52), 김희엽 2(268), 염향수 2(178), 이재준 2(252), 이훈복 3(91), 최대집 3(89)

▶ 32기 권관덕 4(398), 김화용 2(155), 사인우 3(178), 송진수 5(140), 정영규 6(35), 주정용 3(26)

▶ 33기 권해욱 4(108), 고은종 3(5), 권오진 3(11), 김성근 6(230), 김현규 6(478), 남석진 3(180), 신성균 1(21), 안경일 3(277), 안준영 9(248), 이정표 6(179), 정용호 3(21), 조용화 2(59), 조재봉 3(153), 천강민 10(35), 최정식 10(10), 홍종원 2(69)

▶ 34기 김민오 6(70), 김운성 2(87), 김홍식 9(564), 류영택 4(137), 이무이 3(447), 임창훈 3(123), 정웅민 2(255), 정창근 3(149), 정춘환 3(99), 조수창 3(224), 홍영기 3(68)

▶ 35기 김경철 3(52), 김수열 3(112), 박병준 9(437), 박상우 1(106), 박상천 3(70.5), 박시근 3(223), 송명식 4(144), 유희승 6(40), 이문희 3(192), 이용우 6(18), 은명훈 6(50), 임창규 3(150), 장춘삼 3(187), 전성광 3(81), 정병삼 3(194), 정영석 9(176), 정호준 6(180), 하중수 2(67), 한중훈 6(453), 황재혁 10(31)

▶ 36기 김도희 6(140), 김동혁 3(132), 김명규 1(70), 김현 3(171), 박광석 2(20), 박정훈 3(14), 양현승 3(257), 이광희 3(193), 이현중 4(34), 임중수 3(113), 장세호 3(244), 정우철 3(179), 조동권 2(259), 조득래 3(5), 진연수 3(204), 홍석조 3(72)

▶ 37기 김양호 9(366), 김충기 4(231), 김홍년 3(275), 노진철 3(189), 문장권 3(63), 송석봉 4(235), 송용섭 6(371), 신용철 1(134), 엄태환 5(35), 안민환 2(58), 옥원호 3(175), 이관모 3(181), 이원형 6(361), 임원철 3(196), 정우진 3(113), 정태모 4(198), 최정호 1(79), 함성규 3(146)

▶ 38기 강민 3(54), 김대현 3(57), 남상훈 5(20), 모을하 3(274), 문정민 3(159), 서성걸 3(116), 윤호영 5(48), 이경식 2(219), 위재익 6(159), 정한옥 3(251), 함기훈 3(127)

▶ 39기 권웅 2(98), 김의진 3(168), 김인경 3(126), 김지훈 4(169),

박철균 3(182), 송창현 6(197), 심용은 2(130), 양은차 3(109), 이대화 2(253), 이웅렬 2(149), 장동준 4(133), 정대겸 2(68), 최현철 3(315)

▶ 40기 구자운 6(256), 김백린 6(268), 김영우 6(370), 김우형 6(92), 김종욱 3(82), 김형수 2(217), 박상규 3(95), 박진하 3(134), 송석준 3(179), 신동호 3(17), 유형선 3(125), 이준섭 1(7), 이호연 15(908), 이훈석 3(101), 조현 15(296), 주영우 3(50), 최창국 3(137), 하성남 6(77)

▶ 41기 권영철 3(108), 김석진 10(443), 박한지 2(226), 방현욱 3(118), 임성은 6(203), 전종상 10(407), 정기채 2(226), 최민규 6(195), 홍학현 9(109)

▶ 42기 강구한 3(59), 강재석 3(146), 강정희 3(195), 공광석 3(101), 김동우 3(189), 김동진 2(137), 김용민 3(105), 박용준 9(157), 박호찬 2(194), 손병현 3(213), 안정환 2(62), 윤광일 2(50), 윤희철 2(188), 이기욱 1(134), 이성호 3(70), 이승은 2(194), 이용학 1(196), 이호선 4(80), 정만기 2(187)

▶ 43기 김민수 3(67), 김인중 3(279), 노창래 3(86), 박희영 3(102), 배동직 3(248), 백두산 6(320), 엄태섭 3(87), 윤재필 3(3), 이남익 2(105), 이도훈 3(170), 이용희 6(307), 이호선 2(124), 허광석 3(134)

▶ 44기 김대는 3(146), 김승돈 6(80), 권용혁 6(114), 서동준 3(181), 엄태현 2(133), 오승우 6(160), 이민재 3(173), 이영민 2(181), 이희성 4(219), 최재균 3(113)

▶ 45기 권기호 2(175), 김동호 2(183), 김성수 4(189), 박영일 2(178), 박지훈 3(127), 신유철 3(189), 이안권 3(124), 이진희 6(212), 정재현 2(179), 정진우 2(180), 채희용 2(158), 최영웅 2(2), 최충수 2(181)

▶ 46기 강승웅 4(338), 권지민 3(55), 김대영 3(82), 김명철 2(167), 김정렬 2(167), 김정호 3(285), 김정훈 6(47), 김진용 3(202), 박수만 3(74), 백인정 2(167), 송원상 6(284), 오기리 2(165), 이상윤 2(167), 이신화 6(453), 이수원 2(170), 이진철 3(159), 정종택 6(503), 조광연 3(106), 조수빈 2(129), 차승우 3(130), 표상열 2(167), 한영인 2(167), 홍한표 2(158)

▶ 47기 ~ 59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 기부

2025년 2월 20일 KB국민은행 대구경북지역그룹 이세식 대표 등 4명은 지난해에 이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발전기금 1,000만원을 생도대장 정영규 준장(경.재단이사)에게 전달하였다. 국민은행은 3사관학교 발전 동참을 11년째 이어가고 있다.



60기 졸업생 학교발전기금 2천만원 기부

2025년 2월 25일 2년간 정든 모교를 떠나는 60기생들이 그동안 모교와 후원해준 재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학교발전을 위해 2,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졸업식에서 60기 동기회장(김현준)이 이창호 재단이사장에게 전달하였다.



제3충용관(생도생활관) 체력단련장 8개소 운동기구 지원



2024년도 학교발전재단은 생도해외견학, 프랑스 육사 3사생도유학 추진사업 등 총 15개분야 학교지원사업(약 3억7천만원)을 시행했다. 이 중 국비가 획득되어 기금투입이 불필요하거나 각 사업별로 절감된 예산을 취합하여 조성된 약 3천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한 제3충용관내 8개소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설치를 지원해 생도 체력향상에 기여하였다.



발전기금
참여 안내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 정보수정 희망시에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054) 330-3180, 3182



2026년도 육군3사관학교 VISION 설명회



서울
로카우스(용산)
4.16. (수)



수원
노보텔 엠배서더
4.11. (금)



대전
계룡스파텔
4.4. (금)



대구
메리어트 호텔
3.27. (목)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PROGRAM

SESSION I

- 육군3사관학교 VISION
- 입시 전략

SESSION II

- 만찬 간담회
- 질의응답

참가신청

인터넷 : 카카오톡 채널 (육군3사관학교 입학안내)

1:1 참가신청

전화 : 054-330-3434

-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합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호텔식과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공식 입시정보